

신안군 전국 최초 어선 임대사업 소득 '쑥쑥'

군비 32억 지원 총 11척 어선 임대 운영... 젊은 귀어인 유입 활기 불어 넣어

신안군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안군을 찾아온 청년 어업인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다.

어선 임대사업은 어선과 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해 어업인에게 임대 해주고 어업인은 어선 및 어구구입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원금)와 연간 사업비에 대한 0.5%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하며, 원금상환에 완료될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비



32억 원을 지원해 총 11척(흑산 4, 비금 2, 하의 2, 증도·도조 1, 안좌 각 1 척)의 어선을 임대해 운영 중이며 사업 시작 2년여가 지나간 지금은 총 22억 원의 소득을 올릴 만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2019년부터 지속해서 정부 시책사업 국비 지원을 견

의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신안군의 어선 임대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2022년도 현재 까지 사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15명의 어업인이 118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종료 또는 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귀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수요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의 수혜가 확대될 경우 지역을 찾는 청년 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천사섬 신안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이 목표이며, 천사 11호에 이어 천사 100호, 천사 200호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에도 54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기자수첩

'혁신영암 준비위원회'에 바란다



김형두 기자
지역사회부 국장대우 (영암)

지 자체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또 현실과 부합하는 논문 게재가 얼마나 됐는지는 전문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영암군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군의 문제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행여 과거 일부 지자체처럼 공무원에 대한 점령군 행세로 논란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염려를 뒤로하고 민선8기 혁신영암 준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한달은 영암군의 조직·예산·당선자 공약 실현방안 등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우승희 당선자의 '영암이 더 커지는 꿈'이 실현되는 튼튼한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장이 군정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영암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인연을 가지고 혁신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니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인수·인계가 실패한다면 앞으로 군민들의 바램을 담을 비전과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게다가 실망스러운 것은 투명하지 못한 전문가 그룹의 인적 사항이다. 군민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군을 위해 일하는

강진 의료취약지 이동 물리치료버스 운행

매달 1회 마을 방문... 적외선치료·심리지원 서비스

강진군보건소가 군민들의 건강 관리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취약지 이동 물리치료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취약지 이동 물리치료 버스는 6월부터 월1회를 시작으로 매달 각각 소재지에 있는 122개 마을 경로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군민들의 병원 통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치료

버스 운영으로 1:1 맞춤형 물리치료 및 간접파·적외선 치료, 도수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간 외출이 어려워 불안, 우울감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해 마음건강서비스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간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방문서비스와 대면서비스를 접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홍수 기자

땅끝해남

대한민국 미래 농업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중심지로!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협약 | 농식품기후변화센터 유치

해남군